

# 빛장풀자 문턱단다

## 총선 앞두고 쉼법 다른 여야 앞다퉀 자승 스님 방문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불심잡기에 적극 나서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단이 최근 대정부 답화문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빛장을 풀자 반값 등록금 등 각 종현안을 둘러싸고 여야대립이 심각한 정치권이 불교계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6월 17일 민주노동당의 자승 스님 예방을 시작으로 20일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와 민주당, 21일 한나라당 등이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들은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당 활동과 민생안정에 불교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동당은 17일 이정희 대표와 권영길 의원이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들은 평소 스님들로부터 여러 조언을 얻고 있다며 불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북한 동포 돕기에도 불교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불교의 나눔 정신이 진보정당의 가치와 통하는 것 같다. 불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21일에는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위 전채희 위원장과 특위 위원

들이 총무원을 찾아 전통문화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채희 위원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 유형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마무리되는대로 무형의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 관리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강창일 정국회 부회장, 최재성 의원 등이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각종 규제법령으로 보존을 저해 받고 있는 전통사찰 관련 법령의 일원화를 당론 채택 방침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 대표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법령 일원화를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희수, 조윤선 의원 등은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문화보존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법령 정비 등 전통문화보존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전통문화보존위한 법안 마련해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인사들의 예방에서 자승 스님은 정치권이 전통문화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각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교계의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이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 백제문화단지 운영위에 불교계 참여 · 협력키로

불교계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백제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백제문화단지사업소는 최근 불교계가 참여를 통해 능사 보존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조계종, 수덕사, 마곡사, 부여군 사업연합회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문화계,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 각계 인사 9인으로 구성된다.

능사에서 의식 집전 및 보존을 위해 활동할 스님도 운영위 추천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운영위가 추천한 스님은 의식 집전 외에도 관람객들에게 백제문화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해설을 담당한다.

또한 백제문화단지사업소와 충청남도도는 2013년부터 20여년간 단지 내 공동운영권을 행사하게 될 롯데그룹 측에 능사 운영을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백제문화단지사업소 관계자는 "스님들이 능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백제문화의 의미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롯데 측과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종회 의원 정범 스님은 "환경을 위한 일이라고 본다. 불교계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사회법 제소자 멸빈은 악법

## 종헌종법소위 심사서... "악용 우려, 수정해야"

종단이 승려법 개정을 통해 징계 강화에 나서자 중앙종회 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6월 22일 중앙종회 본회의실에서 제8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승려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총무부가 소위에 제출한 승려법 개정안은 종단의 안정과 징계성 유지 강화를 이유로 징계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종단 사정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과 세속기관을 통한 소송시 멸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총무부가 제출한 승려법 개정안 제46조 4항은 '종단(총무원장, 중앙 및 지방 종무기관)을 상대로 세속기관에 민·형사상 제소를 하거나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하여 종단의 법통 또는 교권을 훼손 침해한 자'를 멸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종법에 명시된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종단내 조정기관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 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등의 단서 조항을 삭제

한 것이다. 더구나 '멸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멸빈에 처한다'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제46조 5항에서도 '호계원의 징계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자'를 멸빈에 처한다고 신설해 호계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총무부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징계 관련 조문의 구성성이 미비

### 소송 제기 이유 멸빈은

### 종단 절대 권력화 우려

### 징계 강화에 제동 필요

해 승복하지 않고 분란의 소지가 있어 종단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종단 내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종도들의 다양한 개선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위 의원 스님들은 개정 및 신설 조항들이 악용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법안 스님은 "제소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진정이랑 탄원까지 멸빈

대상이며 사정기관도 아닌 세속기관이라고 명시한 것은 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 법통과 교권의 훼손 범위가 작아도 멸빈 처리해버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경 스님은 "종단의 절대 권력화가 우려된다. 어떤 의의제기도 막겠다는 것인데 악법 조항이 많다"고 말했다.

만당 스님은 "46조 이외에도 유사한 조항들이 개정안에서 보이는 데, 종단뿐만 아니라 지방종무기관까지 포함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위원 스님들이 종단 권력 강화와 정치적 악용 소지를 우려하자 중앙종회 사무처측은 민·형사상 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을 개정안의 총무원장, 중앙 및 지방 종무기관에서 총무원장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무원장 선거 후 통과와리처럼 제기되는 당선무효소송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소위원회 스님들은 총무원장과 종정만을 넣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호계원의 징계 판결에 불복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자를 멸빈에 처한다는 46조 5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삭제하기로 했다. 박기범 기자



자승 스님, 국군수도병원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호국의 달을 맞아 6월 24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국군수도병원 윤한두 병원장을 만나 국군수도병원 법당 보시금과 500만원의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앞으로도 많은 군장병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한두 병원장은 "간혹 과거에 낙후된 병원시설을 기억하고 장병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은 최고의 의료진들로 구성돼,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자승 스님이 병실을 방문해 군장교와 병사들에게 단주와 책을 전달하는 모습. 이은정 기자

## 강원지역 종교지도자들, 평창 유치·의궤환수 기원

강원 지역 종교지도자 모임인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대표회장 정범, 월정사 주지)는 6월 21일 월정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종교지도자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의 오대산 반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선언문 등을 채택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동 선언문'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개최할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통일과 공동번영, 그리고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문'에서는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법"이라며 "환수되는 조선왕실의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제 강점의 수난과 약탈의 역사로 인해 훼손당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종교지도자들은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는 중앙의 문화재가 아닌 지방의 문화유산이아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동섭 기자

## 미입주사찰인 흥천사 주지 정범 스님 임명



이 6월 21일 임명됐다. 흥천사는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규 사찰로 전 주지스님이 토지를 불법 매각했다가 멸빈되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한편, 현종 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이 된 서울 삼성암 주지에는 스님의 은사인 세민 스님이 임명됐다. 조동섭 기자

## 박구원 만평



# 영선사 등용청소년공부방 여름방학 특별 용맹정진 팀 입방공고

인재의 양성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째, 인격적 도야와 수행을 통한 것과 둘째, 선거를 통한 것, 셋 째, 학습을 통한 것입니다.

영선사는 매일 마지막 토요일 지장절야기도를 병행(2011년 5월 현재 152차)하고 있는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장보살님의 사상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자 인재 양성의 길 중 세 번째를 택하여 사찰이 위치한 소재지인 인월에 무료 공부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기 중에는 지역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방학 중에는 20명 정도의 영선사 신도님들 자녀들 위주로 4번의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여름 방학부터 문호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공지를 드려니 안내를 참고하시어 참여하실 님 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년 7월 18일(월) ~ 8월 12일(금) (이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결정함)
- 입방자격 : 중등 이상(대학생 포함) 불자 및 무교 여학생 (남학생은 방사 문제로 영선사 신도들 자녀로 한정함)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35명
- 팀 구 성 : 1팀-자율학습 / 2팀-스님이 직접 영어와 수학 중심 지도(기초반) / 3팀-학교 보충 수업 시작 전 잠깐 쉬는 기간에 와서 공부
- 비 용 : 없음. 약 한 달 간 무료로 영선사에서 숙식하며 학습은 공부방에서 진행됨
- 운영시간 : 오전 9시 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주지 스님의 관리 하에 학습 진행
- 특이사항 : 본 용맹정진은 단기간의 수련대회가 아니라 장기적 학습을 위한 것이므로 종교적인 부분은 매일 일정 시작 전 삼귀의와 반야심경이 있을 뿐입니다.
- 신 청 : 영선사 다음카페에서 입방원서와 청구 서약서를 다운 후 이메일로 신청 후 문자 연락함 - 0770child@hanmail.net
- 기 타 : 문의 사항은 영선사 홈페이지 다음카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람
- 위 치 : 영선사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 공부방 - 인월면 소재지

주지 월공스님 약력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 실상사 화엄학림 수료 / 조계종 어산적법학교 본과 졸업 / 조계종 어산적법학교 전문반 졸업 / 한디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 한디대 청소년학과 졸업 / 공군 군순법사 전역
- 사회복지사 1급 / 교육교사 1급
- 현 영선사 주지 / 현 함양시민연대 공동대표 / 현 남원경찰서 경승 / 현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대표이사 / 현 등용청소년공부방 관장